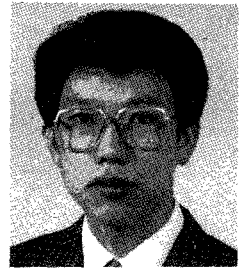


## 올바른 음수 급여



송 덕 진  
(주)중앙케미칼

**약**제로 사용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은 기본이다.

예감에 의한 주먹구구식 약제 투여는 전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일단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그 질병에 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음수급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설명서를 읽고 올바른 용량을 투여한다.

일단 합당한 약제가 선택되면 제품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본다. 이때는 선택약제가 진단된 질병에 합당한 것인지, 용량은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 하도록 한다.

약제는 반드시 추천 용량만큼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다 빠른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과용하게 되면 잔류문제를 야기시킬 뿐 만 아니라 효과를 저해할 수도 있다.

(2) 약제사용 기록을 한다.

양계 관리자는 특히 여러가지 사항을 기억하는게 필연적이며, 세부사항의 관리상태는 이익과 직결되게 된다. 대부분의 약제는 결코 싼것이 아니며, 양계산업에서는 약값의 비중이 사료비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억에 의존한 관리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므로 사용된 약제, 사용된 용량, 일자, Lot No.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된 약제로 인한 어떤 문제점 발생시 그 원인을 밝히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

(3) 투약기의 올바른 사용

음수급여는 물탱크를 이용하던가 약제투여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물탱크는 제대로 사용만 한다면 원하는 약제를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다.

그런반면, 어떤 물 탱크는 너무커서 정기적인 청소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약제 투여기는 음수가 공급되는 통로를 따라 정확한 양의 약제를 섞어주게 된다.

대부분은 작고 다루기가 용이하게 고안되었으나 일부 제품은 그 정확성이 의문시 되는 것도 있다. 즉, 압력이 일정치 않고, 수질에 따라서 또는 약제의 용해도에 따라서 부정확한 투약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투약기를 사용 할 때는 그 정확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

#### (4) 투약계군의 음수량을 알아본다.

우리는 대충 닭이 사료섭취량의 2배가 되는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사온도가 21°C일때의 이야기이며, 표1은 온도에 따른 사료 및 음수 섭취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1에서 보듯이 실제 섭취된 약과 사료 섭취량의 2배로 계산한 음수량에 의한 투약과는 너무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온도가 높을 경우 짐작에 의한 약제는 부족한 양이 되며, 낮은 온도의 경우 과도하게 계산이 된 것이다. 계사내 온도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다른 요인들도 음수 소비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약제를 음수로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음수소비량을 측정해 봐야한다.

음수소비량을 알아보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가장 정확한 것은 계량기와 소모음수량 기록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 (5) 수질과약

물의 질에 따라서 약제의 용해도가 달라진다. 이럴 경우 정확한 약제투여는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어차피 음수를 통한 약제투여는 필연적이므로 수질을 개선시키도록 해

표1. 온도에 따른 사료, 음수 및 약제 섭취변화  
(백색 레그혼)

계사내최고온도 분류	4.4	10	15.5	21	27	32	38
사료섭취량 (kg/100수/일)	13	12	11	10	9	8	7
음수섭취량 (ℓ/100수/일)	18.2	19.3	19.6	20.0	25.3	39.3	56.7
음수소비량/ 사료섭취량	1.4	1.6	1.8	2.0	2.8	4.9	8.1
실제약제섭취량*	0.91	0.95	0.99	1.00	1.27	1.95	2.95
약식 계산**	1.30	1.20	1.10	1.00	0.90	0.80	0.70
차 이	-0.39	-0.25	-0.11	0.00	+0.37	+1.15	+2.25

\*: 체중당 0.005%

\*\* : 사료섭취량의 2배로 계산하여 급여한 경우

야 한다.

① 모든 음수파이프와 밸브에는 라벨을 붙여 어떤 계사에 사용되었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② 투약기의 사용법을 붙여 놓는다.

③ 수압이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 역류로 인해 다른 파이프 라인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진공 브레이크나 역류방지 밸브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 일단 약제를 급이한 후에는 파이프라인 청소물이 자릿깃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자릿깃을 적실 뿐 만 아니라 약제오염을 시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확한 약제사용만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부정확한 음수급여는 약효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잔류문제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 뒤야 할 것이다. 